

## 트럼프 경제 정책에 대한 미국 내 평가와 최근 지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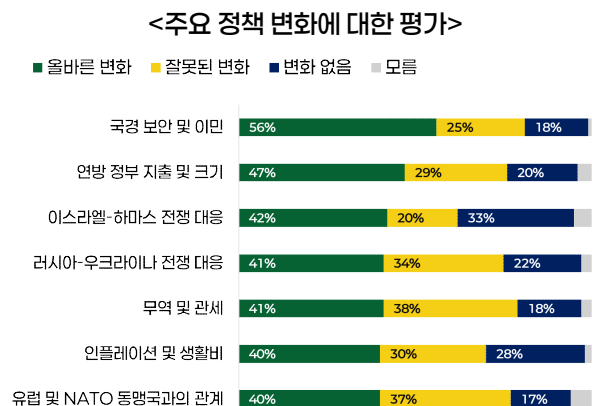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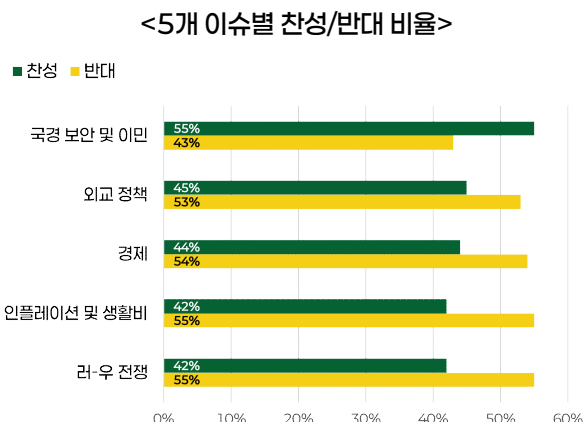
권준희 대리(jh.kwon@kita.or.kr), 이지인 연구조원(jiin.lee@kita.or.kr)

※ 이하 시간 표기는 미국 현지시간(EST)

### I 경제 운영에 대한 국민 여론

-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47%로 1, 2기를 통틀어 최고치이나, 51%가 부정적으로 응답했으며, 특히 경제 정책에 있어서도 역시 과반이 넘는 54%가 '지지하지 않는다'(Disapprove) 고 밝힘
  - ※ 미국 NBC가 3/7~3/11 전국 유권자 1,000명을 대상으로 실시(오차범위 ±3.1%p)
- 경제 분야에 대한 반대 응답은 취임 1기 3개월 차 여론조사\* 보다도 악화(46%→54%)
  - \* 2017.04 NBC, WSJ 공동
- 동 조사에서 다뤄진 5가지 주요 국정 분야\* 중 '국경 보안 및 이민' 정책을 제외하고 모두 반대 의견이 과반을 차지
  - \* 5개 분야 : ①국경 보안 및 이민, ②외교, ③경제, ④인플레이션 및 생활비, ⑤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
- <주요 정책 변화에 대한 평가> 문항에서는 '무역 및 관세'에 대한 부정적 평가(38%)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, '유럽 및 NATO 동맹국과의 관계' 항목이 그 뒤를 이음(37%)

### [주제별 국정 운영에 대한 NBC 여론조사 결과]



### ① 국경 보안 및 이민

- 동 조사에서 다뤄진 5가지 주요 국정 분야 중 유일하게 지지율이 과반(55%)을 상회하며 긍정적으로 평가됨

### ② 외교

- (관세 정책 평가) 캐나다, 멕시코, EU 등 주요국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재의 무역 및 관세 조치에 대해 38%가 잘못된 방향이라 응답하여 다른 정책보다 부정적 평가가 높게 나타났으나 긍정평가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(올바른 변화 41%)

### ③ 경제

- (現경제상황 평가) 응답자의 18%만이 현재 미국 경제를 긍정적으로 평가('매우 좋다' 1%, '좋다' 17%)
- (지지 정당별 상반된 평가) 민주당·무소속은 긍정 평가 비율 하락(각 52→11%, 19→8%), 공화당 지지자는 상승(5→26%)

\* 대선 한달 전인 2024년 10월과 현재 2025년 3월에 실시된 현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를 비교

### ④ 인플레이션과 생활비

- (가계소득과 생활비 간 격차 확대) 유권자의 32%가 가계 소득이 생활비와 비슷하게 유지된다고 답한 반면, 60%는 소득 증가 속도가 생활비에 뒤처진다고 응답

### ⑤ 러-우 전쟁

- (트럼프 동조 국가) '트럼프가 더 동조한다고 생각하는 국가'에 대한 질문에 49%가 '러시아'라고 응답한 반면 우크라이나는 8%에 그침

#### [참고] CNN 여론조사\* 결과 주요 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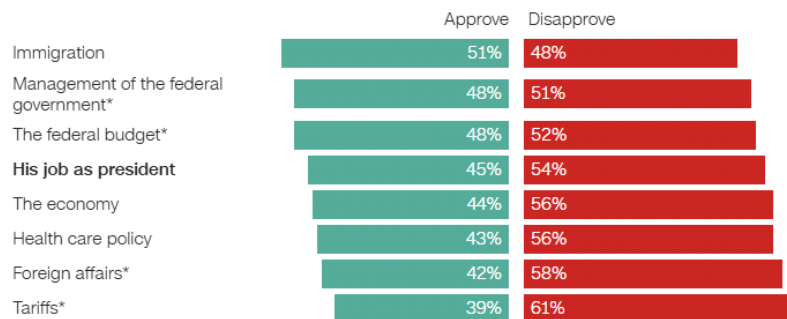
\* 3/6~3/9 미국 성인 1,206명 대상, 표본오차 ±3.3%p

□ 경제 정책에는 과반(56%)이 반대하는 반면, 이민 정책에 대한 지지는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 
NBC 여론조사 결과와 대동소이함

○ 이민 정책 지지도는 51%로, 임기 중 최고치

○ 조사된 주요 이슈 중 '관세'에 대한 반대가 61%로 가장 높았으며, '외교 정책'이 그 뒤를 이음(58%)

#### <분야별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에 대한 찬성, 반대 비율>



\* 절반의 표본에만 질문

□ 트럼프 경제 정책 반대 여론이 높은 가운데, 현지 전문가들 역시 미국 경제를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고 지표 역시 이를 반영

○ 트럼프는 현재 경제 충격을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, 경제 전문가 대부분은 △인플레이션 상승, △경제 성장 둔화, △소비자 심리 위축, △노동시장 악화 등 경기 침체 가능성을 우려

### ① 인플레이션 상승

- 핵심 PCE\* 인플레이션 전망은 기존 2.5%에서 2.8%로 상향 조정되었으며, 인플레이션 상승은 美 연준의 2% 목표 달성을 더욱 어렵게 할 것<sup>1)</sup>

\* PCE(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) : 개인 소비 지출

- 킴벌리 클로싱 UCLA 교수는 관세가 미국 내 생산 비용 증가로 이어져 트럼프의 제조업 활성화 목표에 오히려 방해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

- 벤 카셀만 NYT 경제 전문 수석기자는 저렴한 외국산 상품 구매가 사실상 임금상승 효과를 주어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높이고 이에 따라 미국인 평균이 더 부유해진다는 생각이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지배적이라고 설명

### ② 경제 성장 둔화 전망

- 금년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1.6%로 작년 12월 전망치인 2.3%에서 하락<sup>1)</sup>

- 3월 CNBC 경제 전문가 설문결과, 내년 경기침체 발생 가능성은 36%로 전망됐으며 이는 1월 23%에서 상승

- UCLA 앤더슨 연구소는 이민 정책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, 연방 정부 감축, 관세로 인한 비용 상승과 제조업 위축 등 복합적 요인을 지목하면서 사상 처음 침체 경고(recession watch)를 발령

### ③ 소비자 신뢰 지수 하락

- 불확실한 경제 정책과 관세로 인한 가격 상승 우려로 미국 소비자 심리가 위축되는 가운데 미시간 대학교가 발표하는 미국 소비자심리지수는 3월 57.9로 하락하며, 22년 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

### ④ 노동시장 악화

- 네일 어윈 약시오스 경제 전문 수석기자는 3월 미국 실업률이 4.1%로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, 25세-53세 고용 인구 비율이 0.2%p 하락하고 U-6 실업률\*이 8%를 기록한 것은 노동시장 악화와 고용의 질적 저하를 시사한다고 해석

\*구직 포기자, 비자발적 파트타임 근로자를 포함한 광의 실업률

- 해리 홀저 조지타운대 공공정책 교수는 트럼프 정부의 계약 및 연구 보조금 동결 조치는 연방 정부 고용 1만 명 감소, 특히 전문 서비스 분야 일자리 2천 개 감소에 직접적 영향 주었을 가능성이 크며 이러한 일자리 감소세는 내달부터 심화 될 것이라고 분석

1) FT와 시카고대 경영대학원 부스 스쿨이 경제학자 49인 대상 설문 결과 (3/12-14)

- 데이비드 오터 MIT 경제학 교수는 관세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고부가 가치 제조업 활성화를 대안으로 제시
- 현재의 관세 정책으로는 차이나 쇼크(China Shock)를 막을 수 없으며, 제조업을 활성화하려면 관세 도입보다는 혁신을 이끄는 고부가 가치 제조업을 보호하고 강화하는데 집중할 필요 강조
- 관세를 도입한다면 특정 산업에 초점을 두고 투자 장려 보조금과 연계하여 적용해야 함

## 참고 자료

- 2025.3.16(일) NBC NEWS, Poll: Trump faces early challenges on the economy as a united GOP backs big change
- 2025.3.17(월) NBC NEWS, Poll: Most Americans are rooting for Ukraine. But nearly half think Trump prefers Russia.
- 2025.3.12.(수) New CNN poll: Americans are negative on Trump's handling of economy
- 2025.3.18.(화) NYT, Trump Says a Recession Might Be Worth the Cost. Economists Disagree.
- 2025.3.18.(화) FT, Donald Trump's policies set to cool growth and lift inflation, economists say
- 2025.3.9.(일) CAP, Trump Is Sending the Economy in the Wrong Direction
- 2025.3.18.(화) CNBC, Trump policies 'promise' an economic downturn, says prominent forecaster in first-ever 'recession watch'
- 2025.3.7.(금) Axios, Labor market holds steady, but there are warnings for Trump
- 2025.3 University of Michigan, Consumer Sentiment Index